* 축산뉴스 (소) *

‡ 미산쇠고기 한국 수출작업장 18개 추가 승인 국회심의 거쳐야

미국산 쇠고기 대한국 수출작업장이 18개소가 추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06년 승인해준 30개 작업장을 포함 총 48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 수출될 쇠고기 거의 대부분은 18개 작업장을 포함한 상위 30개 업체에 속한 작업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그 외 미국 정부에서 통보되는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쇠고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수입금지 이전에는 100여개 작업장에서 수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검역 전문가 9명을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10개주 22개 작업장에 파견해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작업장 18곳을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22개 작업장을 요청했으나 그 중 한 곳은 한국 수출용 QSA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승인이 자동 취소됐다. 또 위생문제로 지적받은 나머지 3곳은 미국측에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지 점검단은 일명 다우너 소 도축 허용 여부와 연령감별 시스템, 30개월령 이상 소 구분 도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말 분쇄육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문제가 됐던 네브래스카비프사의 작업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미국측의 최종 역학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브래스카비프사의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시 O-157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 전북 4대 대표 한우브랜드에 3억2천900만원 지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전북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북도가 도내 4대 대표 한우브랜드 경영체에 3억2천900만원을 지원했다. 도 축산당국은 최근 ▲참예우 1억7천600만원 ▲단풍미인한우 6천만원 ▲총체보리한우 5천만원 ▲장수한우 4천300만원 등 총 3억2천900만원의 한우광역브랜드화 육성자금을 4대 대표 한우브랜드 경영체에 지원했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경영체별 지원액은 광역화 정도, 회원농가수 및 사육두수, 상등급 이상의 출현율, 혈통등록비율, 축산업 등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차등지원 했다. 이번 보조금은 한우광역브랜드 경영체의 체질 개선과 광역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한우 혈통의 등록 ▲사료의 통일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 송아지생산안정제 '두당 15~20만원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 중 3~5월 사이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 두당 15~2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한우팀 한 관계자는 최근 조치원 소재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된 한우지도자대회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관계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상금은 지난 98년 시범 실시하면서 이미 1회를 지급한바 있다고 설명하고 올 3월과 5월 사이 태어난 송아지가 4개월이 되는 시점인 3/4분기의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이번에 두당 15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산출은 4~5개월령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고 있으며 등록우 거래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였고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제대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보상금이 지역 축협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암소나 송아지에 대해 판매를 하더라도 보상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